

제 ① 교시

국 어

1. 다음 대화에서 ㉠에 담긴 ‘나운’의 의도로 적절한 것은?

강현: 나운아, 다음 주에 학생회에서 자선 바자회 행사를 주최한다고 하는데, 우리 반이 참가할 필요가 있을까?
 나운: 응, 바자회 행사의 의의를 생각하면 참가하는 게 좋을 거 같아.
 강현: 왜 그렇게 생각해? 수익금을 학급비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아니라던데.
 나운: 바자회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서로 사고팔면, 자원도 재활용되고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서 좋잖아. 수익금을 학급비로 쓸 수는 없지만 그걸로 불우 이웃을 도울 예정이래. ㉠ 그러니 바자회에 참가하는 게 좋지 않겠니?
 강현: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렇네. 나도 집에 가서 바자회에 낼 만한 물건을 찾아봐야겠어.

- ① 감사 ② 설득 ③ 위로 ④ 칭찬

2.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공감하며 반응한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봤어. 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적을 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졌어. 어떡하지?

- ① 지나간 시험을 말해서 뭐 하나? 시험은 끝났으니까 그만 얘기해.
- ② 그랬구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겠다.
- ③ 이번 시험 쉬웠는데, 넌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졌다니 이해가 안 된다.
- ④ 아이참, 너 때문에 나까지 우울해진다. 나 배고프니까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기거나, 소리나 뜻이 변하거나, 예전에 사용하던 말이 사라지기도 한다.

- ① ‘스마트폰’은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면서 새로 생긴 말이다.
- ② ‘어리다’는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하였다.
- ③ ‘천(千, 1000)’을 뜻하는 고유어 ‘즈믄’은 현재 거의 쓰이지 않는다.
- ④ 우리가 ‘나비[나비]’라고 부르는 곤충을 영어에서는 ‘butterfly [버터플라이]’라고 부른다.

4. 밑줄 친 모음이 사용된 단어는?

국어의 모음에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이 있다.

- ① 개미 ② 나라 ③ 수레 ④ 예의

5.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 표준 발음법 ■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ㄷ’, ‘ㄹ’, ‘ㅂ’, ‘ㅅ’,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한다.

- ① 넓다[넙따] ② 앓다[안따]
- ③ 없다[업따] ④ 훑다[할따]

6. 밑줄 친 품사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가을 하늘이 파랗다.
 ○ 예쁜 동생이 태어났다.
 ○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있다.

- 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 ②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 ③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 ④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낸다.

7.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과 같은 것은?

㉠ 하얀 꽃잎이 바닥에 쌓였다.

- ① 꽃이 활짝 피었다.
- ② 동생이 우유를 마신다.
- ③ 소년은 어른이 되었다.
- ④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8.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바른 것은?

- ① 어서 오십시요.
- ② 손을 깨끗히 씻자.
- ③ 나는 몇일 동안 책만 읽었다.
- ④ 그가 배낭을 메고 공원에 간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무척 더웠다.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 씻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여 집 근처에 도착했다.

[A] 그런데 골목길 한 구석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가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모르는 척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득 떠오른 병아리 ‘민들레’ 때문에 나는 발을 뗄 수 없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다. 학교 앞에서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 파는 것을 보았다. 노란 털로 ㉡ 덮여 있는 병아리가 정말 귀여웠다. ㉢ 병아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닭으로 닭의 새끼를 말한다. 나는 병아리를 키우게 해 달라고 엄마를 졸랐다. 내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인지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엄마도 ㉣ 절대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나와 병아리 ‘민들레’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9. 다음은 [A]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 ㉠에 들어갈 구성 요소로 알맞은 것은?

번호	장면 그림	구성 요소	내용
S#1		장면 내용	강아지가 소녀를 바라보고 있음.
		배경 음악	잔잔한 분위기의 음악
		㉠	힘없는 강아지 소리

- ① 대사 ② 효과음 ③ 내레이션 ④ 촬영 방법

10. ㉠~㉣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높임 표현이 잘못되었으므로 ‘파시는’으로 고친다.
 ②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덮여’로 고친다.
 ③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④ ㉣: 문장 호응이 맞지 않으므로 ‘결코’로 바꾼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름아, 뭐 하니?”
 어머니가 문 사이로 고개를 디밀었다.
 ‘헉, 깜짝이야.’
 나는 짜증을 냈다.
 “엄마! 노크!”
 어머니는 ‘아차.’ 하다, 도리어 큰소리를 냈다.
 “노크는 무슨 노크. 지금 방송 시작하는데, 안 봐?”
 “벌써 할 때 됐어요?”
 “응, 광고 하고 있어. 빨리 나와.”
 나도 방송국 웹 사이트에 들어가 예고편을 봤었다. 설렘과 어색함, 신기함과 민망함이 섞여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 동영상을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다.
 ‘아, 나는 저거보단 훨씬 괜찮게 생겼는데…….’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이 실제보다 못해 억울하고 섭섭한 거였다. 연예인들도 실제로 보면 두 배는 더 예쁘고 멋지다는데, 아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듯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더구나 방송 한 번에 이리 심란한 기분이라니, 연예인이 되려면 자기를 보통 좋아하지 않고선 힘들겠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다. 문밖에 선 어머니가 “근데” 하고 덧붙였다.

“왜 그렇게 놀라? 뭐 이상한 거 보고 있었던 거 아냐?”

나는 부루퉁히 꾸얼댔다.

“내가 뭐 아빤 줄 아나…….”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그쳤다.

“아빠? 아빠가 그래?”

나는 그렇긴 뭐가 그렇냐며, 곧 나갈 테니 얼른 문 닫으라 핀잔을 줬다. 어머니는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못한 얼굴로 자리를 떴다. 나는 인터넷 뉴스 창을 닫고, 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동영상을 한 번 더 돌려 봤다.

“실제 나이 17세. 신체 나이 80세. 누구보다 빨리 자라, 누구보다 아픈 아이 아름.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름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닥쳐오는데…….”
 다시 봐도 낯선 영상이었다. 17. 80. 합병증. 웃음……. 하나하나 짚어 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알뜰하게 배열된 걸 보니 사실이 사실 같지 않았다.

‘괜히 하자고 한 걸까?’

막상 완성된 영상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송출될 생각을 하니 걱정스러웠다. 내가 모르는 이들에게 나를 보여 준다는 게 언짢기도 했다. 정확한 건 본방송이 끝난 후에 알게 될 터였다.

-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 -

1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진다.
 ②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
 ③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이야기한다.
 ④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12. ‘아름’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크하지 않은 엄마에게 짜증이 났다.
 ② 방송 예고편을 보고 마음이 복잡했다.
 ③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족했다.
 ④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볼 것이 언짢았다.

13. 다음 감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본방송을 앞둔 아름이의 마음이 이해돼. 왜냐하면 나도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 방송 시작 전까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

- ① 중심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찾았다.
 ②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분석했다.
 ③ 작품에 나타나는 중심 갈등을 파악했다.
 ④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물에게 공감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A]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 길」 -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색채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제시한다.
 - ② 현실 상황을 여러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다.
 - ③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 ④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강한 믿음을 드러낸다.

15. ㉠~㉣ 중 함축적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6. 다음을 참고할 때, [A]와 같은 표현이 쓰인 것은?

시에서 역설이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 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②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③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④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허생은 집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글 읽기만 좋아하였다. 그래서 아내가 샅바느질을 해서 그날그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다.

어느 날 허생의 아내가 배고픈 것을 참다못해 훌쩍훌쩍 울며 푸념을 하였다.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면서 대체 글은 읽어 뭘 하시렵니까?”

그러나 허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꺾꺾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아직 글이 서툴러 그렇소.”

“그럼 공장이¹⁾ 노릇도 못 한단 말입니까?”

“배우지 않은 공장이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러면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시지요.”

“가진 밑천이 없는데 장사치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러자 아내가 왈각 역정²⁾을 내었다.

“당신은 밤낮 글만 읽더니, 겨우 ‘어떻게 한단 말이요.’ 소리만 배웠나 보구려. 공장이 노릇도 못 한다, 장사치 노릇도 못 한다, 그럼 하다못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요?”

허생이 이 말을 듣고 책장을 덮어 치우고 벌떡 일어났다.

“아깝구나! 내가 애초에 글을 읽기 시작할 때 꼭 십 년을 채우려 했는데, 이제 겨우 칠 년밖에 안 되었으니 어쩔거냐!”

[중간 줄거리] 허생은 아내의 성화에 집을 나와, 서울에서 가장 부자라는 변 씨를 찾아가 만 냥을 빌렸다. 그리고는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목이 있는 안성으로 가서 과일을 몽땅 사들이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나라 안의 과일이란 과일은 모두 동이 나 버렸다.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과일이 없으니 상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니, 과일 장수들은 너나 없이 허생한테 몰려와서 제발 과일 좀 팔라고 통사정을 하였다. 결국 허생은 처음 값의 열 배를 받고 과일을 되팔았다.

“허허, 겨우 만 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았으니, ㉠ 이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 만하구나.”

- 박지원, 「허생전」 -

1) 공장이: 예전에 물건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
 2) 역정: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 내는 화.

17. 윗글에서 ‘허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안일에 무관심했다.
 - ② 해마다 과거 시험에 떨어졌다.
 - ③ 계획했던 글공부를 마치지 못했다.
 - ④ 과일을 독점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다.

18. [A]에서 ‘아내’가 ‘허생’에게 역정을 내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 ② 돈을 벌어 오지 않아서
 - ③ ‘아내’의 무능함을 비난해서
 - ④ 글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19.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의범절이 무너지고 있구나.
 - ②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있구나.
 - ③ 나라의 경제 구조가 취약하구나.
 - ④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구나.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국 신장의 요구르트, 스페인 랑하론의 하몬, 우리나라 구례 양동 마을의 된장.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것들은 모두 발효 식품으로, 세계의 장수 마을을 다룬 어느 방송에서 각 마을의 장수 비결로 꼽은 음식들이다.

발효 식품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다양한 발효 식품이 특유의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요구르트, 하몬, 된장을 비롯하여 달콤하고 고소한 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빵, 빵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치즈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식품을 만들어 내는 발효란 무엇일까? 그리고 발효 식품은 왜 건강에 좋을까? 먼저 발효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을 중심으로 발효 식품의 우수성을 자세히 알아보자.

발효란 곰팡이나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미생물이 유기물에 작용하여 물질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발효는 부패와 비슷하다. 하지만 ㉠ 발효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반면에, 부패는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발효된 물질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부패한 물질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함부로 먹을 수 없다.

㉡, 발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김치를 꼽을 수 있다. 김치는 채소를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기 위해 조상들이 생각해 낸 음식이다. 김치는 우리가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발효 과정에서 더해진 좋은 성분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 진소영, 『맛있는 과학 44-음식 속의 과학』 -

20. 윗글에서 설명하는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치 담그는 방법
- ② 발효 식품의 우수성
- ③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
- ④ 여러 나라의 장수 비결

21. ㉠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정 ② 대조 ③ 예시 ④ 정의

22. 이어질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그래도 ② 그러나 ③ 그렇다면 ④ 왜냐하면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더위는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하도록 만든다. 당장의 더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몸소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 기후 변화는 현대의 큰 문제이다. 모든 이의 피부에 와 닿는 가장 심각한 전 지구적 문제, 나와 무관하다며 모든 것을 무시해 버려도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다.

국제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GFN)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지구 생태 용량 과용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 지구의 일 년 치 자원을 12월 31일에 다 쓰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제로 자원이 모두 소모되는 날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날이 2015년에는 8월 13일이었는데 2016년에는 8월 8일로 5일 앞당겨졌다. 또한 우리가 현재처럼 자원을 소비하면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3.3개 필요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 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위 앞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 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 더위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우리 모두 관심이 적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 더위보다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껴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김산하, 『김산하의 야생 학교』 -

23. 위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요약한다.
- ② 등장인물 간의 갈등 원인을 찾아본다.
- ③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한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정리한다.

24.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세 먼지로 대기 오염이 심하다
- ② 에너지의 사용량과 그 증가량이 심하다
- ③ 오랜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 ④ 해양 오염으로 동물들의 생존 문제가 심각하다

25. ㉡에 해당하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더위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 ② 지구의 자원을 아껴 사용한다.
- ③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한다.
- ④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을 준비한다.